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Barron's: 미 제조업 활동 14개월 연속 위축
- Bloomberg: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연착륙 가능성 크지만 보장 못해”

#### [미국 금융]

- CNN Business: 미 연방부채 34조 달러 상회
- Bloomberg: 달러, 새해에 ‘최고의 하루’로 시작

#### [뉴욕시]

- Bloomberg: 뉴욕지 주말에 첫눈 예상

#### [부동산]

- WSJ: 미 신규 주택 붐
- Bloomberg: 연말 미 주택 구매 신청 건수 하락

#### [무역]

- Bloomberg: 후티반군, 홍해에서 또 공격
- Bloomberg: 해운사 Maersk, “홍해 항해 너무 위험”

#### [자원]

- CNBC: 구리가격, 2025년까지 75% 상승 가능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N Business: 스타벅스, 고객 개인용 컵 사용토록
- CNN Business: 테슬라, 기록적인 판매량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Barron's: ISM Report Shows Manufacturing Activity Continues to Decline** **미 제조업 활동 14개월 연속 위축**

- 새해들어서도 미 제조업이 여전히 위축된 상태다.
- 공급관리자협회(ISM)의 구매 관리자지수는 12월에 47.4로 전월의 46.7보다 약간 상승했다.
- 그러나 이 수치는 미국 제조업이 14개월 연속 위축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Barron's 기사

## Bloomberg: Fed's Barkin Says Soft Landing Looks More Likely, But Not Inevitable

###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연착륙 가능성 크지만 보장 못해”

- Thomas Barkin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가 말하기를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은 높지만 확실하지는 않다며 추가 긴축 가능성을 반복했다.
- 그는 “수요와 고용, 인플레이 모두 치솟았지만 이제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그는 인플레이가 2% 목표 범위에 들어가는 중이며 특히 6개월 근원 인플레이는 목표 아래에 있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 [미국 금융]

### CNN Business: US national debt hits record \$34 trillion

#### 미 연방부채 34조 달러 상회

- 의회가 새로운 연방 자금 방안에 합의키로 한 마감일을 몇주 남겨 놓은 상황에서 연방 부채는 처음으로 34조 달러를 넘어섰다.
- 연방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12월 29일 현재 연방 부채는 34조1천억달러로 증가했다. 이는 그동안 누적된 부채 총액이다.

CNN Business 기사

### Bloomberg: Dollar Kicks Off 2024 With Best Day Since March on Fed Doubt

#### 달러, 새해에 ‘최고의 하루’로 시작

- 달러가 지난 3월 이래 가장 큰 폭의 상승으로 출발했다.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 규모에 대한 베팅을 줄이면서 큰폭으로 새해를 시작했다.
- 블룸버그 달러 현물 지수는 화요일 0.7% 이상 상승 마감했고 오늘 수요일 오전 0.3% 추가 상승중이다.

Bloomberg 기사

## [뉴욕시]

### Bloomberg: New York City Has a Snowy Weekend Ahead: Weather Watch

#### 뉴욕시 주말에 첫눈 예상

- 뉴욕시와 미 동북부에 주말 첫눈이 예상되는데 빠르게 이동하지만 약한 폭풍이 예상된다.
- 이번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센트럴파크에 1인치나 2인치의 눈이 올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DC와 필라, 볼티모에도 비슷한 적설량, 그리고 보스턴의 1인치 더 많은 눈이 예상된다.

Bloomberg 기사

## [부동산]

**Bloomberg: US Home-Purchase Applications Fall in Week Including Christmas****연말 미 주택 구매 신청 건수 하락**

- 작년 마지막주에 대출 비용이 상승하면서 주택 모기지 신청이 거의 5개월 만에 최고치에서 줄었다.
- 모기지은행협회에 따르면 모기지 신청건수는 12월 29일 끝나는 주에 7.6% 하락해 지난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30년 모기지 계약 금리는 6.76%로 5 베이시트 포인트 상승했다.

Bloomberg 기사

**WSJ: Home-Building Boom****미 신규 주택 붐**

- 11월 단독 주택에 대한 민간 지출이 7개월 연속 증가해 강한 수요를 보여 주고 있다. 기존 주택 판매 시장의 침체와는 대조가 된다.
- 연방 상무부에 따르는 11월 단독 주택 건설 지출이 전월 대비 2.9% 늘어 계절 조정 연간 기준으로 4천2백26억 달러를 기록했다.

## [무역]

**Bloomberg: Houthis Claim Yet Another Attack on a Container Ship in Red Sea****후티반군, 홍해에서 또 공격**

-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또 다른 상업용 선박을 공격했다.
- 후티 반군의 대변인은 방송 연설에서 CMA CGM Tager라고 불리는 선박이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공격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 이에 프랑스 컨테이너 운송 기업인 CMA CGM SA는 해당 선박은 어떤 피해도 겪지 않았으며, 당시 알렉산드리아를 향해 홍해를 향해 중이었다 밝혔다.

- 한편, 영국 해양무역작전국(UKMTO)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지나는 시점에 한 선박이 후티 반군에 공격받았다는 게시글을 공지했다. 선박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Bloomberg 기사

### **Bloomberg: Maersk Decides the Red Sea Is Too Unsafe for Its Ships for Now**

#### **해운사 Maersk, “홍해 항해 너무 위험”**

- 컨테이너 선박 기업인 머스크가 다시 한번 홍해 운항을 중지할 것이라 말했다. 기업 대변인은 추후 공지가 있기까지, 해당 지역의 운항을 중지할 것이라 기업 홈페이지에 공지한 것이다.
- 머스크의 이런 결정은 세계에서 가장 큰 두 컨테이너 선사가 이 지역의 운항 중지를 연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컨테이너 선사인 Hapag-Lloyd AG는 일찍이 홍해 지역 운항을 피할 것이라 말했다.
- 해상 운송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운임이 증가할 것이라 전망 때문에 두 회사의 주가는 급등했다.

Bloomberg 기사

### **[자원]**

### **CNBC: Copper could skyrocket over 75% to record highs by 2025 — brace for deficits, analysts say**

#### **구리가격, 2025년까지 75% 상승 가능**

- 구리 가격이 앞으로 2년 동안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 문제와 구리에 대한 높은 수요가 원인인 것을 보인다.
- 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수요 상승과 2024년도 하반기의 달러 약세가 구리 가격을 높일 전망이다.
- 런던금속거래소(LME)의 구리 가격은 작년 3월에 톤당 1만7백 30불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CNBC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N Business: Starbucks will now let customers use personal cups for nearly all orders**

#### **스타벅스, 고객 개인용 컵 사용토록**

- 스타벅스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으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용 컵에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확장하고 있다.
- 오늘 수요일부터, 스타벅스는 드라이브 스루와 애플리케이션 주문에서 개인용 컵 옵션을 추가할 예정이며 이는 카페에서 직접 주문해야 재활용 컵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에서 바뀐 것이다.
- 팬데믹 이후 드라이브 스루와 앱을 이용한 주문은 급격히 상승했으며, 스타벅스 매장 매출의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 스타벅스 리워드 멤버십에 가입된 고객들은 개인용 컵을 사용할 때마다 10센트의 할인과 25 star를 적립하게 된다.

CNN Business 기사

### CNN Business: Tesla reports record sales but growth slows in face of growing EV competition

#### 테슬라, 기록적인 판매량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 테슬라가 4분기 글로벌 판매량이 48만4천 4백7대라고 보고했으며, 이는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20% 가까이 상승했다. 그러나 중국 자동차 기업인 BYD는 4분기에 52만6천 4백9대를 판매했다고 보고했다.
- 아직 테슬라가 작년 총 판매량에서 BYD를 앞서있긴 하지만, BYD는 아직 북미로 진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 테슬라는 커지고 있는 경쟁과 높은 금리에 대응하고자 차량의 가격을 낮추고 있지만, 이런 움직임은 기업의 이윤 마진을 줄이고 있다.
- 테슬라는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Model 3과 같은 일부 차종에서 7천 5백불에 달하는 연방 세금 공제에서 제외를 당했는데, 미국에서 차량이 생산됐다 하더라도 중국산 배터리나 부품을 사용한 경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또한 연방 규제 당국이 테슬라 차량의 자동주행 기술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대략 2백 만대의 차량을 리콜한 바 있다.

CNN Business 기사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 IMF 총재 "미국 경제 확실하게 '연착륙'으로 가고 있다"

#### "미중 갈등 따른 세계 경제 균열로 글로벌 GDP 7% 감소할 수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일(이하 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결단력 덕분에 금리 인상에 따른 일부 고통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확실하게" 연착륙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이날 CNN에 출연해 "중소기업에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미국) 경제를 경기침체로 몰아넣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30여 년 만에 가장 가파른 금리 인상 이후 미국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노동 시장이 모두 진정되면서 미국 경제가 심각한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희망이 높아졌고 올해 중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